

우리가 사는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멸해버리고 사세요!

굳이 촛불을 켜는 이유

문 올해 처음으로 선원에서 거행하는 촛불재에 참석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생전 처음으로 느껴지는 장엄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는 올해다 내년이다 하지만 본래 이 진리의 자리에서는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과거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찰나찰나 과거로 돌아가고 찰나찰나 미래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지금 촛불을 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사는 것이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과거를 멸해 버리고 미래도 현재에서 자꾸 융성시키고 증장시키면서 꽃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라 이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촛불 하나를 들어도 이건 범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촛불 하나가 과거도 비출 뿐 아니라 미래도 비춰 줍니다. 그런데다가 과거와 미래를 한데 합쳐서 현실에 놓고선 두루 비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촛불 하나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이거 촛불을 업신여겨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밝음이니까. 방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잖으면 배우질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밝음을 찾음으로써 바로 마음이 가난치 않게 되고 아주 안정되고 언제나 방황하지 않게 되고 진득해지고 점잖아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자에 내가 지었던 것도 전부 녹아져 버리는 까닭에 우리 현실에도 살기가 무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환이 있고 병고가 있고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를 앞세우지 마시고 내 마음의 그 주인공으로부터 밝음을, 그 빛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과거의 업보나 가환이나 그런 모든 것을 녹여 버리게끔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스스로서 생활이 곤궁해지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공부인연 심어주고 싶어

문 누구나 느끼는 거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환희심이 나서 가까이 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공부 인연을 심어 주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됩니다. 괜히 더 삐죽거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깥 인연들은 더 쉬운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답 이 공부하는 데는 가까운 사람 공부시키기가 정말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먼 데 사람을 시킬 수는 있어도 가깝게 있는 사람을 공부시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정말 아주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주!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전부 날탱이예요, 날탱이! 외려 남들은 먼 데서도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달아나가요! 그러니 글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일일이 "야, 저 먼 데 사람도 이렇게 오는데, 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왜 참석을 안 하느냐?" 이래도 그게 욕심질이라. 그러니 그걸 어떡하겠소? 오히려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마는 조사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아주 가깝다고 하는 사람을 제도 못하는 이유가 그 집안에서 하나가 만약에 삐죽 나왔다면 그 아래 것들은 다 그냥 아주 망가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가 삐죽 나온 거를 증오하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받아들인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는 그렇게 살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해 주느냐.' 이건 도대체 이유가 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올라와야 할 텐데, 그걸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아무리 그렇게 일러 줘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덤벙 '내 대신 좀 먹어 주면 내가 배가 부를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더 외려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모였을 때는, 이 바다로 물이 모였을 때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있어요. 그러나 이 물이 흘러갔을 때는 다 각각 헤어지고 또 모였다 흩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육으로 볼 때는 부모와 자식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기 앞만 보고 열심히 정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밝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가족도 더불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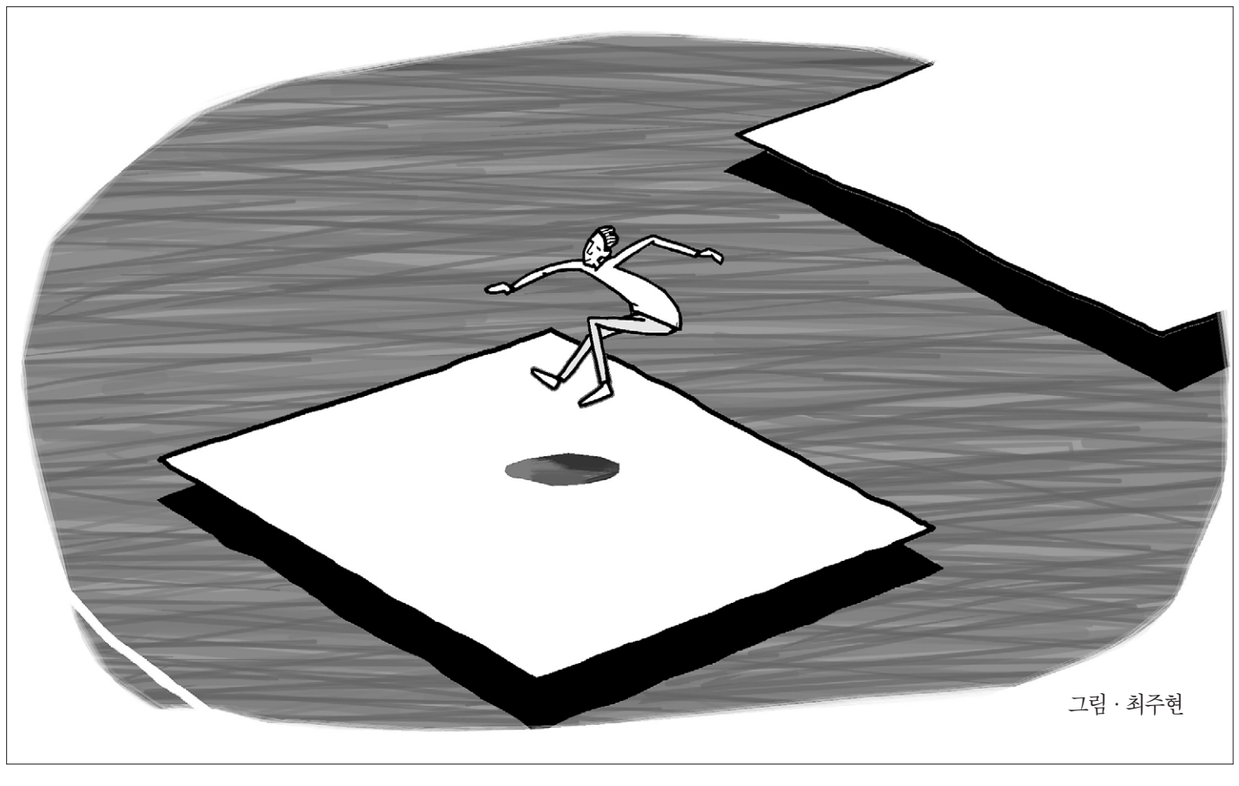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문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불교에 관심이 많아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을 했다고 여겼는데 막상 내 몸이 불편하게 되니 괜히 짜증도 나고 신경질적이 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내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이치를 알아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 보지 않고는 그 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애기가 되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다 그 주인공에 일임시키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거길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다 들이고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내 이 육의 기능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감독이 되는 거죠, 모든 게. 기능의 감독자로서 전부 응용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인체 안에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를 다 관리인으로서 하다가 보면 바로 참 제작자가 되는 거죠.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역은 이 안에서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즉 말하자면 곤충이 다 나한테는 호법신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만 사천 털구멍도 업보가 되려면 그 털구멍 하나에 한 생의 업보가 된다 하지마는, 그것이 호법신이 된다면 일분일초도 안 돼서 자기는 항상 다니면서 자길 보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그 주인공에 모든 걸 몰락 일임시켜 버리고 잠재해 있는 자기 실상이 지금 현재 의식과 계합이 된다면 그렇게 좋은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체 만법을 자기 응용대로 참, 하늘과 땅을 상응하면서, 모든 일체 유생무생을 다 상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둘로 보질 않고 하나로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곤충의 생명이나 내 큰 생명이나 둘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을 내기 때문에 일임해도 진짜 되질 않지, 겁을 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믿는 게 되거든요. 진짜 자기 이 육신마저도 주인공에다가 내버리는 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라 던져라 하는 거죠. 몰락 던져라. 던지면 건져진다.

그러니 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와 부가 둘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이 둘이 아니고 이게 전부 해말갛게 이렇게, 연기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구름이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이. 생각 내기 이전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는, 빼 쓰고 잠그고 하는 거는 마음, 바로 지금 내는 마음, 이거죠. 그것을 조절하려면 나도 물질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참나에게 모든 걸 일임하는 거죠.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했고 네가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탁 맡겨 버리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거기다 요구를 하고요. 감사하는 것도 전체니까, 전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감사해도 거기 하나만 감사하면 전체가 다 감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없이

☞26면으로 계속

정규 제1기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남부종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설 **경기불교대학 정규 제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수과목 :**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화요일	**컴퓨터 강좌** ◇기본사용법 ◇종무관리 ◇인터넷강좌 ◇홈페이지제작,관리		태고종사 기본교리 법회설법
금요일	**내전** ◇사미과목 ◇사집과목 ◇사교과목	**의식** ◇사물다루는법 ◇상용의식 ◇범패	명리학 육임

◆ **모집대상 :**
① 한국불교태고종 및 타종단 스님
② 불심이 돈독한 재가불자

◆ **교육기간 :** 2년 (정규반 1년, 연구반 1년)

◆ **전 형 :** 면접 ◆ **수 강 료 :** 월 10만원

◆ **접수기한 : 2009년 2월 20일**

◆ **접수방법 :** 전화하시면 입학원서, 세부사항을 보내드립니다.

※연 락 처 :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262 원광사
☎ 031)353-2877 / 전송 031)353-2854

한국불교태고종 설립인가제2009-1호 **경기불교대학**
학장 임경순(보광) 부학장 이정석(보명)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삼보 귀의 하옵고
각 종단 대덕스님, 종도스님 및 불자님들께

현대불교 경남남부지사를 한 해동안 보살펴 주심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기축년 새해엔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옵고 기축년 한해에도 경남남부지사를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현대불교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합장

기사제보, 구독, 광고 등
접수 받습니다

문의 055)746-9778
055)867-0776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무 량 암
주지 혜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876-3
TEL 053)356-4115

매봉산 금 주 사
주지 화광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1442
TEL 054)976-3799 (옷밭마을)